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

김부성**

Cross-Border Interactions in the Swiss - German - French Border Region*

Boo-Sung Kim**

요약 : 본 논문은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과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형성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은 '경계와 접경지역'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월경협력의 유형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의 월경적 협력과정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레기오 트리레나'에서의 일상적인 월경적 이동(통근, 쇼핑, 주택)을 연구한다.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에서의 월경적 협력은 다양한 활동영역을 지닌 여러 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며 러시아 인형 바부슈카처럼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독일·프랑스 간의 경제적인 차이는 3국간의 대량 월경이동을 유발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월경이동을 울만이 제시한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 기반(상호보완성, 이동가능성, 개입기회)에 입각하여 해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경제적 장벽의 제거가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또는 초국경적 공동체 정신을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레기오 트리레나',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 울만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 기반, 월경적 상호작용,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Abstract :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ross-border interactions and the formation of trans-boundary regional identity in the Swiss-German-French border region. It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recent studies on 'boundary and border region', in order to gain a insight into the theoretical debates on this theme and to find out ideal types of the cross-border co-operations. And then it deals with the everyday cross-border movements (working, shopping, living) in 'Regio TriRhena',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the trans-boundary co-operations in the EuroRegion 'Upper Rhine'. There are several committees to be defined in trans-boundary co-operation on the 'Upper Rhine', with different scopes of action, structured collectively like Russian dolls (Babushka principle).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3 countries trigger massive cross-border movements. This paper attempts to organize these cross-border interactions around Ullman's 3 bases for spatial interaction (complementarity, transferability, intervening opportunity).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elimination of economic obstacles does not suffice to create trans-boundary identity or a trans-border common regional spirit.

Key Words : 'Regio TriRhena', Swiss-German-French border region, Ullman's 3 bases for spatial interaction, cross-border interaction, EuroRegion 'Upper Rhine', trans-boundary regional identity

* 이 논문은 2003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필자의 스위스 바젤대학 안식년 체류기간동안 연구되었으며, 2005년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kimboo@korea.ac.kr

1. 서론

국가 간의 경계는 오랫동안 정치 및 문화지리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였다. 지리학자들은 국경을 문화경관상의 물질적 요소로 간주하였고 권력과 주권을 분할하는 선으로 파악하였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경계(borders and boundaries)는 사회과학과 문화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었으며 경계연구자들은 경계가 고정적인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경계의 가변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즉 경계와 접경지역은 점차 모든 물질적 · 상징적 · 권력적 속성이 혼합되어지는 모호하고 잡종적인 지역으로 역동적 · 문화적 과정내지 담론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경계연구가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서 동서가 타자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세계화 · 환경문제 등 국경을 초월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경계를 둘러싼 영토 및 인종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적 경계와 종교적 · 문화적 · 경제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많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계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Passi, 2003, 462).

주지하듯이 세계적인 재정 및 교역의 성장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수반되는 세계화는 탈경계화(debordering, Entgrenzung)를 촉진시켜 왔는데 경계와 관련지어 다음 세 가지 현상의 증가를 가져왔다. 첫째 월경적 관계(cross-border relation) 내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둘째 개방경계적 관계(open-border relation) 내지 자유화(liberalization), 셋째 초국경적 관계(trans-border relation) 내지 경계로부터의 해방이 그것이며 세계는 점차 Castells(1989)이 언급한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Sum, 2003, 208). 그러나 이것이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현상인지 경계가 재조정되는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Passi, 2003, 468-469).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용어는 Deleuze와 Guattari(1984)가 자본주의가 기존의 고정된 계급 · 혈연 · 공간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면서 사용하였고, 이러한 예는 소련붕괴이후 수많은 독립국가의 탄생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자주 회자되어지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란 용어는 서부유럽에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카탈로니아, 스코틀랜드처럼 국가 간의 분쟁대신 국내분쟁이 새로이 등장하는 곳도 있다. 세계화시대에도 국가적 · 민족적 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하다(Newman, 2003, 133).

경계(boundary, Grenze)는 한계나 정도를 규정 또는 지시하는 어떤 것으로(Newman, 2003, 123) 일반적으로 한 지역 또는 집단을 다른 지역 또는 집단과 분리하는 선을 지칭한다(Johnston, 2000, 52). 보통 외적인 경계는 국가 간의 경계, 내적인 경계는 국가내의 행정구역간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역시 경계를 의미하는 border는 boundary가 주로 선을 의미하는데 반해 종종 선과 그 경계의 양쪽지역(borderland라고도 함)을 뜻하고 frontier는 국경부근의 한쪽지역으로 과거에는 국가 간의 완충시대 내지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Brunotte, 2002, 72). Border나 frontier가 정치적 · 행정적 경계의 성격이 강한 반면 boundary는 정치적 경계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경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 포섭과 배제의 경계, 학문적 경계, 도덕적 경계 등과 같이 사회적 · 상징적 의미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한다(Johnston, 52-53). 심리학에서 경계란 정체성, 즉 타인과 자기와의 한계를 뜻하며 따라서 경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peiser, 1993).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경계설정 은 영토 확보를 의미하며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나 어떤 지역은 그 관할영토에 대해 주권행사 즉 통제, 질서 유지,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Agnew(1998)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영토적 덫(territorial trap)’이라 불렀다. 또한 경계는 그 지역이나 국가의 정체성 형성 예를 들어 민족문화, 민족주의, 지역주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ssi, 2003, 464-465).

전통적으로 지리학에서 많이 다루어진 경계연구의 주제는 경계의 유형, 경계의 생성과정 및 변화, 경계설정의 근거 및 정당화, 경계의 기능과 경계를 둘러싼 갈등 등 이었다(Brunotte, 2000, 72). 경계의 유형은 자연적 경계(natural boundary)와 인위적 경계(artificial

boundary)로 나뉘어 질수 있으며 과거에 사람들은 경계를 자연적 환경과 주로 연결시켰고 역사적인 소산물로 인식했다. 한편 기존의 취약·민족·종교·문화·언어 등의 분포와 정치적·행정적 경계의 일치여부에 따라서 선행적 경계(antecedent boundary), 순응적 경계(subsequent boundary), 강제적 경계(superimposed boundary)로 구분하기도 한다(Ante, 1981, 117-121). 선행적 경계는 먼저 경계를 설정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일컫으며, 순응적 경계는 원주민의 취약분포나 문화적 경계를 고려하여 구획된 행정적 경계이고, 강제적 경계는 식민지 시대에 종종 나타났듯이 원래의 민족적·종교적 분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정치적 경계가 설치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경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경계가 경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계의 분리(장애)기능 및 접촉기능에 따른 경계의 통과성 여부, 경계양쪽 지역 간의 상호작용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연관된 지리적 주제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영토 및 종교분쟁, 해양에서의 경계문제(예: 독도문제), 지하자원·수자원 분쟁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Minghi, 1963).

또한 과거에는 지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국경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점차 세균·학군·복지·치안·각종 개발계획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국내 행정경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과거 경계연구자들은 자연론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대부분 경계가 설정되기까지의 과정만 중시하고 그 이후의 경계관리부분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경계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연속적인 문화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인식하에 효율적인 경계의 공동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계관리는 접경지역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 접경지역 주민들의 연대감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월경관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아울러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탈경계화, 국경 없는 세계 및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의미에 대한 재 탐구도 현대 경계연구가 주목하는 과제이다(Haekli&Kaplan, 2002; Newman, 2003).

일반적으로 경계 및 접경지역에서의 상호작용의 변화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더 큰 정치

적·경제적·문화적 변화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화해무드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방치되었던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평화벨트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김영봉, 2005). 또한 1648년 30년 전쟁 종료이후 300년 넘게 유지해온 주권국가 중심의 베스트팔렌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라 유럽에서 접경지역은 종래 주변부 위치에서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경을 접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낙후된 국경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접경 양 지역 간의 상호활동을 증대시켜 통합된 단일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EU, 관련 국가, 관련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문남철, 2002, 443). 이러한 월경협력과 지역통합의 시도는 유러리전(EuroRegion)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특히 유사한 문화적·경제적 배경이 존재하고 상호보완 가능한 기능을 지니며 유럽 대경제권과의 교통연계가 좋은 접경지역에서 유러리전이 결성되고 있다. 이 유러리전은 유럽통합의 상징적 공간 또는 유럽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대표적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현주, 2002, 59).

본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일반적 의미와 잠재력을 검토하고 접경지역과 월경협력의 여러 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그 중 한 유형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즉 유럽에서 가장 오랜 월경협력의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월경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유러리전 'Upper Rhine' 중 'Regio TriRhena' 지역(스위스 바젤을 중심으로 하는 라인강 상류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실제 1) 월경적 상호협력의 발달과정, 2)통근·구매·주거 등의 일상적 월경행동, 3) 초경계적 지역정체성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1). 또한 월경적 이동도 결국은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상호협력관계를 Ullman이 제시한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원리를 통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월경적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 이론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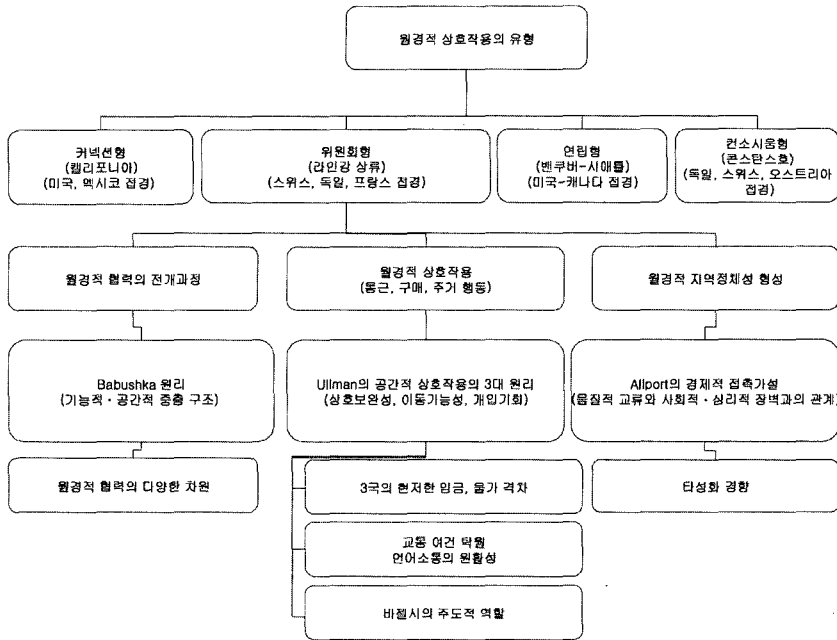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내용

2. 접경지역과 월경적 협력의 유형

접경지역(borderland, border region, border area, Grenzraum)은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그 공간적 규모가 다양하다. 경계는 '분리의 선'인 동시에 '접촉의 선'이며 '장벽'인 동시에 '통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국경적 공간(접경지역)은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인 측면을 지닌다. 즉 국가단위에서는 정치적·경제적 주변부에 해당되지만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에서는 인접국가와의 풍부한 협력의 경험을 보유한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이현주, 2002, 38). 정치적으로 볼 때 접경지역은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는 번두리가 되기도 하며 반대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접경지역에서는 이질적인 두 문화의 대립으로 인해 '상이성'이 조성되기도 하고 여러 문화의 교환, 피드백 등으로 인해 '상이성'의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경지역은 문화적으로 중첩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으로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처럼 새로운 초국경적·지역적·혼성적 정체성을 지닌 제 3의 잡종지역이 되기도 한다(Johnston, 2000, 49).

근래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쇠퇴와 국경의 의미축소로 인해 접경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새로이 평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은 폐쇄적 공간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이원호, 2005, 298-299). 접경지역은 '세계화+지방화' 일명 '세방화(glocalization)'가 구현되는 장소, 다시 말해서 초국가적 통합과 국지적 지역화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월경지역(cross-border region)을 미래에 국민국가를 대체할 지역 국가(regional state)로까지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Blatter, 2003). 통합이후의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의 분리기능 보다는 접촉기능이 확대되면서 접경지역의 발전은 국경을 마주한 양 지역의 상호작용과 월경적 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원호, 2005, 300).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사례연구로 부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낸 Martinez의 연구는 접경지역 연구에 유용한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Martinez는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접경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소외된 접경지역(alienated borderland)에

서는 경계는 기능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월경적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존하는 접경지역(co-existent borderland)에서 경계는 때에 따라 상호협력 개발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셋째,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interdependent borderland)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월경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넷째, 통합된 접경지역(integrated borderland)에서는 양국 간의 정치적 경계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물적 교류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Martinez, 1994, 1-5).

Lezzi는 행위자 중심의 연구방법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정치행정가들의 행동과 제도적 기관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는 접경지역의 관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먼저 부정적 조정(negative coordination)의 원칙은 환경문제와 같이 적어도 한 지역의 경제발전계획이 이웃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긍정적 조정(positive coordination)의 원칙은 어떤 분야에서 지역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의 활동이 공동목표를 위해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합병/통합(merger/integration)의 원칙은 접경지역내 각 지역들의 법안이나 정책들이 상위목표를 위해 총체적으로 개편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모든 권한이 초국가적 기관에 이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Lezzi는 접경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전략의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장벽으로서의 경계에 의한 폐쇄된 접경지역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지역의 이익에 우선되며, 필터로서의 경계, 즉 반통과적인 경계에서는 접경지역은 선택적으로 각자에 유리한 관계를 시도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접촉을 제도화한다. 끝으로 접촉의 장으로서의 경계인 경우 긴밀한 월경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완전한 통합으로 진행시킨다(김상빈·이원호, 2004, 123).

Kraetke는 독일-폴란드 접경지역내 지역경제적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독일과 폴란드 접경지역이 대변동 이후 서로 상이하게 세계적 시장경제체제에 편입이 되어 왔으며, 미래의 독일-폴란드 접경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역발전의 방향 - '저차원의 경로(low road paths)'와 '고차원의 경로(high road paths)' - 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차원의 경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개 접경지역중 낙후된 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외부에서 조종되는 발전방식으로 저임금, 낮은 생산비등으로 인해 표준화된 대량생산제품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고차원의 경로'는 내생적 발전 잠재력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꾀하는 보다 차원 높은 교류방식이다. 아직도 유럽의 지역경제에서 '저차원의 경로'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앞으로 유럽통합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고차원의 경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상빈, 2002, 7).

김원배는 유럽과 동북아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이라는 두 요인의 결합을 통해 4종류의 월경적 협력의 유형을 도출하였다(표 1). 그는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사회문화적 유사성이라는 기초조건은 장기적 차원에서 월경적 협력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정책이나 제도상의 양립성은 중단기적 차원에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접경지역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김상빈·이원호, 2004, 125).

비슷하게 Blatter(2003)는 월경적 정치 기구를 제도화·공식화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2).

먼저 위원회형 기구는 월경적 상호협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관으로 설립되며 이 같은 기구의 임무, 권한, 지리적 영역 등에 관한 규정은 국제

표 1. 월경적 협력의 유형(김원배)

제도적 양립성	경제적 보완성	약	강
	약	비협력형	갈등적 협력형
강	경쟁적 협력형	비갈등적 협력형	

출처 : 김상빈·이원호, 2004, 125

표 2. 월경적 정치기구의 유형

	공식적/구속적 기구	비공식적/비구속적 기구
제도적/ 통제적 기구	위원회 형 (commissions) 정확한 지식/ 규칙 전문가: 법률가, 기술자	커넥션 형 (connections) 유용한 지식/자원 중개인: 계획가/ 개발업자
상징적/ 이념 지향적 기구	컨소시움형 (consociations) 정서적 상징물 통합인: 지역의 지도자급 정치인	연립형 (coalitions) 가치.이념 조직인: 정당 및 이익단체 대표

출처: Blatter, 2003

적 협약에 의해 제정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월경문 제와 갈등에 과학적 · 기술적 · 법적으로 접근한다. 이 기구의 구성원은 정부가 선임하고 과학자 · 법률가 등 전문가로 조직되며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가 뚜렷하 다. 다음으로 커넥션형 기구는 비공식적이며 법적인 기반이 약하고 내부적인 규제가 거의 없는 월경적 기 구로 주로 특정한 실질적 목적을 위해 구성되고 따라 서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동하며 그 지리적 영역도 기 능적으로 목적에 맞게 결정된다. 구성원으로는 계획가 나 개발업자들과 같은 중개인이 다수 포함된다. 트러 스트, 비공식적 규범, 상호합의 등으로 접경문제를 해 결하며 양쪽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전략(positive-sum game)을 채택하고 양국 간의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 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연립형 기구에서는 정체성 · 상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물질적 이익 보다는 이념적 유사성, 공통된 신념, 연대감 등에 의해 조직이 결성된다. 주요구성원은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표들이며 상호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제정 한다. 이 기구의 궁극적 목표는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 고 공동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의 한 국가가 다른 파트너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마지막 컨소시움형 기구는 이념적인 상호의존성과 제도화를 결합한 형태 로 공식적으로 지역취장, 지역로고, 지역명칭, 지역지 도 등의 전형적인 상징물을 제정하여 그 지역의 정체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요 구성원은 그 지 역의 지도자급 정치인들이며 이들은 일종의 초국가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컨소시움형은 위원회 형과는 달리 국 가 간의 협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은 하 향식 명령체계가 아닌 회원들 간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Blatter, 2003).

Blatter는 이와 같이 먼저 이론적으로 월경기구의 유 형분류를 시도한 다음 이어서 유럽에서 2곳, 북미에서 2곳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을 사례로 실질적인 월경기구 형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이한 성격을 지닌 4곳의 접경지역은 유럽의 라인강 상류 스위스 · 독일 · 프랑스 접경지역, 콘스탄츠호 주변 독일 · 스위 스 · 오스트리아 접경지역과 북미의 캘리포니아 미 국 · 멕시코 접경지역(샌디에이고-티후아나 인구밀집 지역), 태평양 북서부 미국 · 캐나다 접경지역(밴쿠버 와 시애틀, 포틀랜드를 연결하는 일명 캐스캐디아 지 역)이다(표 3).

표 3에서 보듯이 본 논문의 사례지역이기도 한 라인 강 상류 지역에는 상이한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간의 경제적 ·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높으며 위원 회형을 비롯해 다양한 월경적 기구들이 결성되어 있고 초국경적 의회까지 조직되어 있다. 콘스탄츠호 접경지 역에서는 컨소시움형 월경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하며, 미국-멕시코 접경지역에는 제도적 논리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따라서 위원회형과 커넥션형 기구가 압도적 이다. 캐나다 밴쿠버-미국 시애틀 접경지역에는 통합 적인 월경기관이 부재한 실정이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연립형 기구들이 발달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 에서의 월경적 협력이 북미보다 더 체계적 · 종합적으 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미는 유럽 에 비해 개인의 활동 내지 민간영역에 더 의존하는 경 향을 보인다. 또한 유럽의 경우 접경지역에 속해있는 각 지역 정부가 뚜렷한 영토적 정체성하에서 월경적 상호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북미의 경우는 탈경계 화적인 요소가 강하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가들도 콘 스탄츠호 접경지역에서는 각 국가 행정구역별로 환경 평가를 실시하는데 반해 미국-캐나다 국경지역에서는

표 3. 유럽과 북미 대표적 접경지역에서의 월경기구의 특성

대륙	접경지역	구성	접경지역의 특성		월경기구의 특성
			사회적·경제적 · 환경적 상호의존성	정치체제	
유럽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 (라인강 상류)	위원회형 강 컨소시움형 커넥션형 중강 연립형 중강	강	상이	1) 구성 : 정부대표, 정치가 2) 지리적 활동영역 : 분명, 공동의 접경지역 인식 3) 통합적 임무, 목표 4) 영토적 정체성 5) 'space of place' 6) 개발업자 : 유럽의 중심으로 간주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접경지역 (콘스탄츠호)	컨소시움형 강 위원회형 약 커넥션형 약 연립형 약	약	유사	
북미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티후아나)	커넥션형 강 위원회형 강 연립형 약 컨소시움형 약	강	상이	1) 구성 : 민간부문에 의존 2) 지리적 활동영역 : 불분명, 기관간의 불일치 3) 제한적 임무, 목표 4) 탈영토적 상호의존성 5) 'space of flows' 6) 개발업자 : 관문, 통로, 출입구 로 간주
	미국·캐나다 접경지역 (북서태평양연안 밴쿠버-시애틀)	연립형 강 위원회형 약 커넥션형 약 컨소시움형 약	약	유사	

출처 : Blatter, 2003 에 의거 필자가 재구성

행정구역을 넘어서 생태적인 특성(예를 들어 유역분지, 야생동물의 이동루트)에 따라 그 들의 평가영역을 결정한다. Castells(1989)의 용어를 빌리자면 유럽의 접경지역에는 아직도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이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고 북미의 접경지역에서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이라는 새로운 공간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자들에게도 유럽의 두 접경지역은 '유럽의 중심에 있는 한 장소'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북미의 두 접경지역은 '관문, 회랑, 출입구' 등 즉 흐름의 통로로 간주되어진다. 같은 북미에서도 샌디에이고-티후아나 접경지역은 높은 정도의 물질적 흐름을 보여주는데 비해 밴쿠버-시애틀 접경지역은 물질적 흐름보다는 신념, 이상, 이념 등의 사상적 흐름에 의해 통합되어가는 측면이 강하다(Blatter, 2003).

3. 유리리전 '라인강 상류'에서의 월경적 협력의 전개

1975년에 결성된 Euroregion 'Upper Rhine(라인강 상류, Oberrhein)'은 독일·프랑스·스위스 접경지역으로 라인강을 구심점으로 하여 우선 자연환경적으로 등질지역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 지역은 길이 약 350km, 폭 약 35km의 대체로 평탄한 분지 지형으로 라인지구대(Rhine Rift Valley)에 속하며 서쪽으로 보쥬산맥, 남쪽으로 쥐라산맥, 동쪽으로는 슈바르츠발트에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의 중앙으로 라인강이 흐르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온화한 '라인강 상류형 기후'가 나타난다. 문화적으로도 이 지역은 동일 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족적, 언어적으로 같은 알레만(Alemannic) 계열이고 최초의 이 지역 정착민인 켈트족 이래 가끔 단절이 있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발전해왔으며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오늘날에도

독일어 · 프랑스어의 이중 언어가 가능하다. 대표적 건축물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콜마, 독일 프라이부르크, 스위스 바젤의 대성당도 유사한 건축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이 지역 전체면적은 약 19,000km²로 그 중 독일의 영토가 50.9%, 프랑스의 영토가 43.7%, 스위스의 영토가 5.4%를 차지한다(그림 2). 인구는 2003년 현재 약 570만으로 그중 50%정도가 독일인, 약 1/3이 프랑스인, 10%정도가 스위스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독일의 Baden-Wuerttemberg 주 전체와 Rheinland-Pfalz 주 일부, 프랑스의 Bas-Rhin, Haut-Rhin 현(Département), 스위스의 Basel-City, Basel-Country 칸톤 전체와 Aargau, Solothurn 칸톤 일부가 이 유러리전에 소속되어 있다. 이 지역은 유럽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 통로 상에 위치하여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중심도시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일명 City of Europe), 독일의 칼스루에(Center of Technology), 스위스의 바젤(City of Humanism & Chemistry)이다 (Haefliger, 2003; Lezzi, 2000; Schaefer, 1996; Speiser, 1993).

유럽의 월경적 상호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은 접경지역이라는 미시적 규모에서 시작하여 점차 통합이 진전되면서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정부 간에 (inter-territorial) 국경 지역의 특정문제에 대해 해결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초국가적 제휴(transnational cooperation)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상호협력은 INTERREG 프로그램 같은 유럽연합의 지역 정책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INTERREG은 국경에서의 장애효과를 제거하고 경제적 중심지와 변두리의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그 대상지역에는 유럽연합 역내국경(가입국과 가입간의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역외국경지역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EU 비가입국이지만 전체 칸톤 26개중 15개가 EU가입국과 국경을 공유하며 전체 국민의 절반정도가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INTERREG에서 스위스가 포함된 5개 접경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는 유럽연합의 역내국경과 역외국경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지니며 1960년대부터 월경적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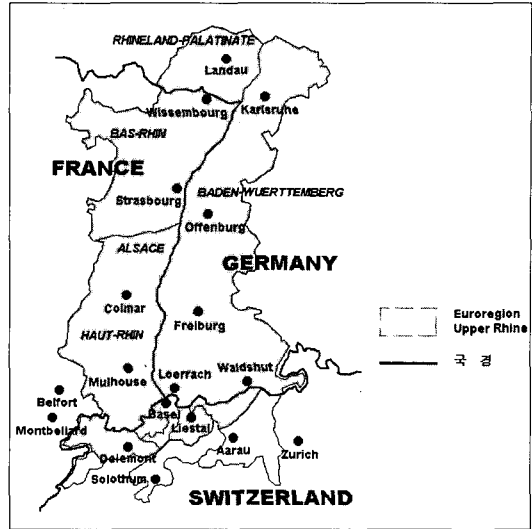


그림 2. EuroRegion 'Upper Rhine'

출처 : Lezzi, 2000, 79

협력을 진행시켜온 월경협력의 모델지역이다(Lezzi, 2000).

제 2차 세계대전 후 본 지역에서의 월경협력의 전개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 1기는 1975년 3국간의 Bonn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기간으로 'Regio Basiliensis' 같은 개별적인 시도가 모색되었던 시기이다. 제 2기는 INTERREG 프로그램이 개시된 1990년대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정부위원회와 지역 간 협의회가 설립되었는데 협의를 위한 회의는 자주 개최되었지만 구체적 사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말하자면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제 3기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INTERREG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초국경적 협력 사업이 다수 실시된 시기이다. 북부지구와 남부지구로 나뉘어 있던 지역 간 협의회는 1991년부터 'Upper Rhine' 협의회로 통합되어 'Upper Rhine'이라는 공간단위가 이 지역의 상위 공간단위로 확립되었다. 본 지역의 월경적 연대 · 제휴는 국가(정부위원회), 주(Oberheinkonferenz, ORK, Upper Rhine Conference), 지방자치체(Regio TriRhena)라는 각 주체 수준마다 형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바젤을 중심으로 3개국인구밀집지역(Triationale Agglomeration Basel, TAB)이나 월경하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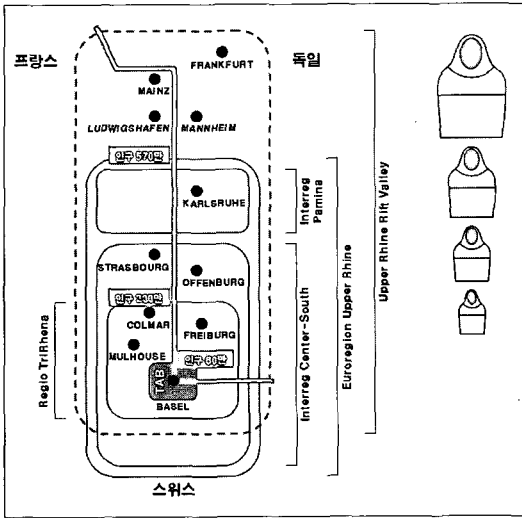


그림 3. 유러리전 'Upper Rhine'의 중층적 구조(바부슈카 원리)

출처 : Haefliger, 2003, 176

이나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INFOBEST 네트워크도 설립되어 있다(Baechtold and Huber, 2003).

이처럼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는 월경적 제휴 측면에서 기능적·공간적으로 중층구조를 나타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중층적 구조는 다양한 크기의 인형 여러 개가 하나의 큰 인형속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 인형 바부슈카(Babushka)를 닮았다 해서 '바부슈카 원리'라고도 불리 운다(Haefliger, 2003). 공간적으로 볼 때 인구 570만의 유러리전 'Upper Rhine' 안에 'INTERREG Upper Rhine Center-South' 관할지역이 있고 다시 'INTERREG Upper Rhine Center-South' 안에 인구 230만의 'Regio TriRhena'가 존재하며 'Regio TriRhena' 안에 다시 인구 60만의 '바젤대도시권(TAB)'이 포섭되어있다(그림 3).

이러한 중층성은 본 지역의 월경적 상호작용의 역사적 과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것은 우선 'Regio Basiliensis'(1963년)와 'Regio du Haut-Rhin'(1965년)의 성립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차원에서 주도되었다. 이 유러리전의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라인강은 명실공히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때로는 이 지역의 결합요소로 때로는 분열요소로 작용하며 이 지역과 역사적 발전을 함께 해 왔다. 전통적으로 비교적 개방된

경계였던 독일·프랑스·스위스 국경은 양차대전을 겪으면서 단절되었고 이에 공동체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1963년 스위스 기업인들을 주축으로 민간차원에서 성립된 민간협력기구가 바젤을 중심으로한 'Regio Basiliensis'였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월경협력기구이며 이 지역은 독일-네덜란드 접경지역에 이어 두번째로 오래된 유러리전이다(Baechtold·Huber, 2003). 이 기구의 활동범위는 지금의 'Regio TriRhena'와 유사하다. 1965년에는 프랑스 Haut-Rhin 현을 주축으로 민간차원의 월경협력기구 'Regio du Haut-Rhin'이 설립되었고, 1985년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중심으로 'Freiburger Regio-Gesellschaft'가 구성되었다. 1971년 이래로 세 지역 정부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Haefliger, 2003; Lezzi, 2000; Speiser, 1993).

1975년에는 독일·프랑스·스위스 3개국에 의한 Bonn 협정이 체결되어 '라인강 상류' 전체에 대해 협의하는 정부위원회와 주정부를 주체로 하는 'Upper Rhine Conference'가 설립되었다. 마찬가지로 주정부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주제를 서로 논의하는 '3개국 회의(Tripartite Congress)'가 198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1980년대에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각각의 월경협력기구위에 국가 및 주차원의 상위기관들이 중층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INTERREG 프로그램의 개시와 더불어 본 지역은 'INTERREG Upper Rhine Center-South'의 사업영역이 되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INTERREG은 이 지역의 월경협력을 위해 약 6,550만 유로에 해당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INTERREG의 도움으로 월경활동을 위한 정보센터인 'INFOBEST Palmrain'이 1993년에 세워졌고 1994년에 지방자치체를 주요 멤버로 하여 'Regio TriRhena'가 조직되었다. 현재 이것은 이 지역의 실질적이며 핵심적인 월경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바젤 대도시권에서는 TAB이 권내 공간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50여개 지방자치체에 의한 'Neighborhood Conference'는 유로 에어포트, 공동의 아이덴티티, 헬스케어 등에 관해 협의하는 비공식적 정보교환 기구이다. 또한 주·군 차원에서 '라인강 상류 협의회(Council of Upper Rhine)'가 1997

년부터 활동하고 있다(Haefliger, 2003; Lezzi, 2000).

4. 'Regio TriRhena'에서의 월경적 상호 작용과 지역정체성

1) Regio TriRhena

3장에서 서술했듯이 INTERREG의 범위 안에서 국경을 접하는 지역 간에 다양한 조합의 월경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에서 지속성과 활동실적을 겸비한 주요 월경기구로는 '라인강 상류 협의회' 외에 'Regio TriRhena'와 'Pamina'를 들 수 있다. 'TriRhena'가 '라인강 상류'의 남부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 'Pamina'는 북부를 점하고 있으며 독일 칼스루에의 영향권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비해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는 아직까지 초국경적 조치가 충분히 육성되지 못했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의 월경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은 'Regio TriRhena'가 담당해 왔다. 원래 'Regio Basiliensis'로 출발한 'Regio TriRhena'는 라인지구대 남쪽에 위치하며 스위스 · 독일 · 프랑스 3국에 걸쳐있고 면적은 대략 8,700 km²에 달하며 인구는 약 230만명 정도이다(그림4). 행정구역으로는 독일의 Freiburg시, Emmendingen, Breisgau-Schwarzwald, Loerrach, Waldshut, 스위스의 Basel-City, Basel-Country, Aargau 일부, Solothurn 일부, 프랑스의 Haut-Rhin 현등이 포함된다(Schroeder, 2000). 주요도시는 스위스의 바젤(인구 19만명),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인구 20만), 프랑스의 뮈루즈(인구 17만) · 콜마(인구 7만)등이다. 이 지역 2001년 지역내총생산 640억 유로 중 화학이 12%, 금융 · 재정이 7.5%, 운송이 5%, 기계 · 자동차가 5%를 차지하고 있다(<http://www.regiotriRhena.org/>).

'Regio TriRhena'의 월경적 협력기구인 'Regio Basiliensis'의 핵심 사업으로는 개인들 간의 월경협력 촉진, 기업들 간의 월경협력에 대한 조언, 생명과학발전을 위한 Bio-Valley 조성, 3국간의 대학 및 민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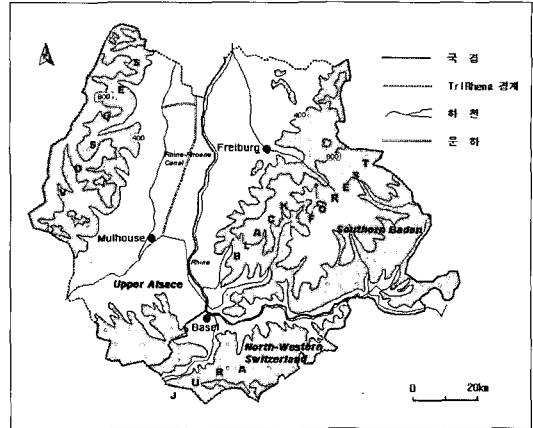


그림 4. Regio TriRhena

출처 : Eder and Sandtner, 2002, 142

기관 교류, 'Euregio Certificate'를 통한 견습생 교류, 매년 '북서스위스 경제연구' 출간, 월경문제 해결과 정보제공을 위한 'INFOBEST Palmrain' 운영, 지역 전철망 건설, 3국 150개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 패스 판매, 관광부문 상호협력, 3국 매스미디어 협력, 'New Energy BASE' 사업을 통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 발굴 촉진, 3국 학생 및 교사 교류 촉진,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부터 'Regio TriRhena' 협의회가 조직되어 60개에 이르는 회원(시,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등으로 구성)들이 적어도 1년에 2번씩 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본 지역의 월경적 상호작용은 정부나 지방 자치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주도되는 부분이 큰데 이는 'Regio Basiliensis'의 회원구성(개인 52.3%, 단체 47.7%)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역 월경적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Endress +Hauser 그룹은 오픈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3국의 각 자사공장에서 각각의 종업원을 일정기간 순환근무토록하고 있으며 월경적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http://www.regbas.ch/>; Schroeder, 2000).

2) 'Regio TriRhena'에서의 월경적 상호작용

주지하듯이 지리학자 Ullman(1957)은 1950년대 중반 지표상의 모든 공간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원리로 3가지, 즉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이동가능성(transferability), 개입기회(intervening opportunity)를 강조하였다. 먼저 상호보완성의 원리는 스웨덴 경제학자 Bertil Ohlin이 1933년 그의 지역간·국제간 무역연구에서 정립한 개념으로 어느 두 지역 간에 공간적 흐름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이 두 지역이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다시 말해 어느 한 지역의 필요한 부분을 다른 지역이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보완성은 보통 지역 간의 상이성(regional variation)으로부터 파생된다. 둘째 이동(수송)가능성의 원리란 어떤 사람이나 상품이 두 지역 간에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지역 간에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두 지역 간에 교통로가 없다면 두 지역의 교류는 성립되기 힘들다. 이동가능성은 보통 거리(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 및 비용거리)에 반비례하고(distance decay), 접경지역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정치적 장벽(예; 국교단절)이 있다면 양 지역 간의 접촉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입기회의 원리는 미국의 사회학자 Stouffer(1940)가 제시한 개념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의 양은 목적지가 보유한 기회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지점사이의 개입기회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B로 가려던 사람이 더 가까운 C에 일자리가 생기면 원래의 목적지 B대신 C에 머무른다는 것이고 여기서 C는 개입기회가 되는 것이다(Wheeler, *et al.*, 1998, 78-84). 본 논문에서는 'Regio TriRhena'에서의 국경을 넘는 일상적 공간활동(통근, 쇼핑, 주거)을 Ullman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원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상호보완성에 의한 공간적 상호작용

김원배(2002)가 월경적 상호협력에서 상호보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듯이 이 지역의 월경적 이동도 경제적 상호보완성 또는 경제적 차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월경 통근자(Frontier Commuter, Grenzgaenger)

에 대해 살펴보면 본 지역의 월경통근자는 약 55,000명에 이르며 프랑스로부터 스위스와 독일로, 독일로부터 스위스로의 형태로 특징 지워진다. 프랑스 및 독일로부터 스위스로의 월경노동자는 약 48,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30,000명은 프랑스로부터, 18,000명은 독일로부터 통근하고 있고 5,400명 정도의 월경노동자가 독일로 통근한다(그림 5). 스위스 바젤지역에서 일하는 프랑스 출신 통근자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특히 여성), 독일 출신 통근자들은 화학·약학 공업 분야에 많이 종사한다. 주요 통근자 송출지역인 프랑스의 경우 1999년 알사스 Haut-Rhin 현으로부터의 월경노동자수는 약 4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8할은 스위스로, 2할은 독일로 통근하고 있다. Haut-Rhin 현으로부터의 월경노동자 분포에는 노동지로의 접근성이 작용한다. 즉 현의 남동부에는 스위스로, 북동부에는 독일로의 통근자가 탁월하게 나타난다. 특히 바젤에 가까운 Huningue에서는 전체 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 중에 약 반수가 스위스로 통근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을 넘는 통근이동의 배경에는 바젤의 다양한 일자리와 3국간의 현저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프랑스 알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임금수준은 약 1.5배, 스위스 북서부는 그 이상이다(Eder and Sandtner, 2000; Mohr, 2000; Schroeder, 2000)

일반적으로 월경통근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및 계절적 노동자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 그들은 비자영업자로 대부분 서비스업체나 기업체의 취업자이고 근로세는 일하는 국가에, 소득세는 모국에 납부한다. 경제양편의 경제수준의 차이, 조세제도, 재정지원, 사회복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통근하는 구조적 통근자는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높은 편이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단기 통근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 월경통근의 주요원인은 경제양쪽의 경제적 불평등이며 월경통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Brunotte, 2000, 71-72).

한편 3국간의 임금격차는 역으로 스위스 및 독일기업의 알사스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알사스 지역은 인근 로렌지역과 더불어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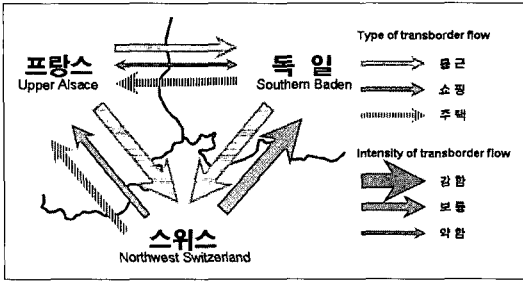


그림 5 'Regio TriRhena'에서의 월경이동과 상호보완성 출처 : Eder and Sandtner, 2002, 148

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더불어 프랑스 유수의 섬유공업을 비롯해 금속 · 화학 · 기계 · 전기 공업 등이 입지해 있다. 유럽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사스 지역은 현재 유럽의 중추지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의 공업적 기초와 고수준의 노동력은 많은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알사스 지역 다국적 기업의 종업원 수는 이 지역 민간기업 전 종업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국경을 넘는 자본과 인력의 이동으로 인해 3국간 노동의 지역적 분업이- 즉 본사 · 연구개발 부문: 스위스, 숙련 노동력 부문: 독일, 미숙련 · 저임금 노동력 부문: 프랑스- 확립되고 있다(Mohr, 2000; Schroeder, 2000).

다음으로 국경을 넘는 쇼핑활동에서도 전형적으로 상호보완성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통근과는 반대로 구매를 위한 월경이동의 흐름은 스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식품 및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저렴한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이루어진다(그림 5). 독일과 프랑스의 유제품 및 육류의 가격은 스위스 그 것의 1/2 내지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일 · 프랑스 · 스위스 국경부근에는 스위스 인을 겨냥한 대형 쇼핑센터들이 입지해 있고 이 지역 소매서비스업 고용인들의 비중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 전체 주민의 1/3이상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쇼핑을 위해 국경을 넘고 있으며 그 쇼핑 목록 속에 3국간의 상호보완성이 나타난다. 즉 스위스 바젤에서는 고가품의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프랑스에서는 와인이나 치즈 등의 식품류가 월경쇼핑의 주 품목이 되며 육류, 야채, 생활용품 등은 독일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Eder and Sandtner, 2000).

마지막으로 3국의 주택가격의 차이도 3국간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알사스 농촌의 부동산가격이 독일과 스위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많은 독일인과 스위스인들이 프랑스 쪽에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그림 5). 알사스 지방 주택가격은 인근 북서 스위스에 비해 대략 40%, 독일 바덴 남부에 비해 대략 20% 정도 저렴하다. 1998년 말에 이미 국경에 가까운 몇몇 알사스 마을에는 상주하는 독일 · 스위스 인의 비율이 5%를 넘었고 알사스 Haut-Rhin 현 전체에 5,597명의 독일인과 2,236명의 스위스인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스위스나 독일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렇게 독일 및 스위스 도시로 부터 국경 부근 알사스 농촌으로 도시민들이 전입해 들어옴에 따라 이 지역에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교통 · 환경문제 및 원주민과의 갈등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Eder and Sandtner, 2000).

(2) 이동가능성과 월경적 상호작용

이동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간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지리적 여건일 것이다. 이 지역의 탁월한 교통환경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월경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그림 6). 우선 이 지역을 관통하는 라인강은 오래 동안

3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해 왔다. 주요 하향으로는 라인강의 소항중점인 바젤, 독일의 Weill am Rhein, 프랑스의 뮐루즈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3국 국경 부근 뮐루즈에 연간 250만명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바젤-뮐루즈-프라이부르크 공항(Europort)이 입지해 있으며 바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는 많은 간선철도,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이 통과한다. 월경이동자들을 위한 지역전철, 버스노선 등도 구축되어 있다(Schroeder, 2000).

다음으로 잘 갖춰진 교통망이 이동가능성의 물질적 기반이라고 하면 언어소통의 원활함은 이동가능성의 정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이 지역 주민들은 같은 알레만 언어계통으로 이 지방 고유의 방언이 있으며 독일어와 불어의 이중언어

(Bilingualism)가 보편화되어 있고, 주민의 70% 이상이 다른 국가의 언어를 이해한다. 알사스 지역은 4차레나 독일과 프랑스로 영토관할이 바뀌는 역사적 경험을 하였으며 스위스는 독일어와 불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이 지역 많은 독일인도 옛 부터 잦은 왕래로 인해 프랑스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교류를 하는데 있어 거의 불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국경을 넘는 상호작용, 특히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교류에 필수적이며- 근래 한류열풍을 타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타국문화를 이해하고 서로간의 정신적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 실제로도 알사스 지방의 경우 이중 언어 구사자가 월경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Eder and Sandtner, 2002).

(3) 개입기회와 월경적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개입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 월경협력에서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젤의 역할이 중요하다. 3장에서 설명했듯이 본 지역에서의 중층적인 월경적 제휴·연대는 바젤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형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림 7). 바젤의 인구는 20만이 안되지만 이 지역 유일의 대도시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화학, 의학, 금융 등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고차서비스기능을 수행

하는 한편, '세계도시' 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주도권을 잡고 이 지역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젤 외에 '세계의 환경수도' 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와 뮐루즈 같은 대도시들이 있고 거리상으로 볼 때 'Regio TriRhena' 내 어디에서나 이들 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기본존재기능 수행을 위해 구대역 이 지역을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그림 6). 즉 Regio 밖의 다른 도시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사실이 이 지역 내에서의 독특한 월경활동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바젤지역에서 유럽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과 기업의 월경협력도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비 가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본 지역의 월경적 협력에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 간에서는 비교적 단순했던 지역격차가 스위스의 존재로 인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바로 이러한 지역 간의 다양성이 3국간의 교류를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Haefliger,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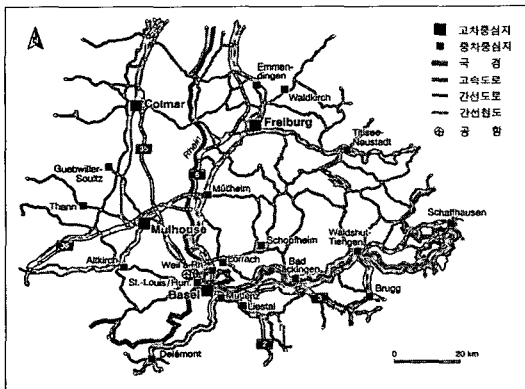


그림 6 'Regio TriRhena'의 교통망과 이동가능성

출처 : Schroeder, 200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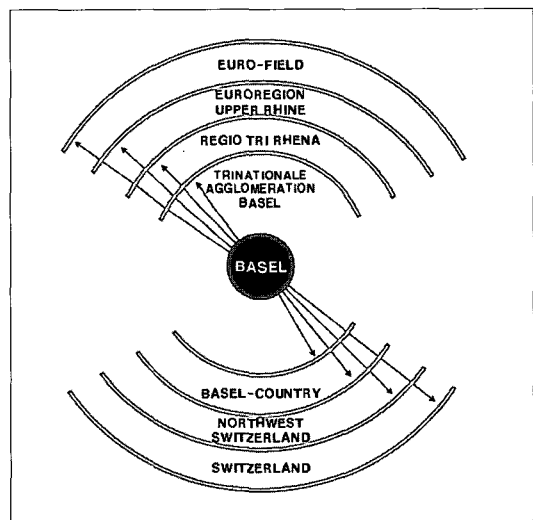


그림 7. 바젤시 중심의 동심원 경계권

출처 : Haefliger, 2003, 179

3) 초국경적 지역정체성(trans-boundary regional identity)의 형성

이 'Regio TriRhena'에서의 유사한 문화적 배경, 빈번한 일상적 교류, 다양한 기관들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등은 접경지역 협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 국경을 초월하는 '공동의 정신(common spirit)'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는 "활발한 월경적 상호협력이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통합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 하는데 대한 호기심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지역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이론적인 전제 조건- 즉 라인강을 중심으로 하는 등질적인 자연환경, 이중언어 구사를 통한 의사소통 가능성, 공통의 민족적·문화적 기반-은 이 지역에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이 지역 사람들의 56.5%가 공통의 문화를 이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인정했고 48.3%가 라인강을 이 지역통합의 상징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역사를 지역통합의 상징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26.6%에 불과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95년에 설립된 'Regio TriRhena' 협의회는 이 지역 월경협력의 조정·자역할을 하면서 특히 상호간의 편견을 없애고 초국경적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50% 이상이 'Regio TriRhena'를 '동일문화지역' 또는 '국경을 초월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지역주민들에게 'Regio TriRhena'의 공간적 범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Regio TriRhena'를 바젤과 그 인근지역 또는 국경지역 중 라인강 상류에 인접한 지역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Eder와 Sandtner(2002)는 이 지역주민 851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다른 공간 규모(유럽, 국가, 주, 기타)에 대한 정체성을 비교해 보았다. 즉 어느 지역에 가장 애착심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느냐에 대한 설문이었다. 어느 지역에 가장 소속감을 지니느냐를 묻는 질문에서 스위스인은 국가(38%), 유럽(25%), 칸톤(15%), 'Regio TriRhena' (11%), 북서

부(11%)순으로 응답했고 독일인은 유럽(29%), 남부 바덴주(26%), 국가(25%), 'Regio TriRhena' (11%), 기타(9%)순으로 프랑스인은 국가(35%), 알사스 주(28%), 유럽(26%), 'Regio TriRhena' (8%), 기타(3%)순으로 답했다. 아직까지 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국가나 국가 내 행정구역, 유럽 등이 'Regio TriRhena'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의 변수가 지역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이 입증되지 않았고 단지 교육수준만이 초국경적 지역정체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가에 더 소속감을 느끼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럽이나 'Regio TriRhena'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했다. 가장 교육정도가 높은 응답자는 'Regio TriRhena'라는 개념을 떠나서 '세계인(cosmopolitan)'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또한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이 신입주민들에 비해 지역에착도가 컸다(Eder and Sandtner, 2002).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유럽통합 및 월경협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유럽에서 가장 월경협력의 역사가 길고 초국경적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조차 아직까지 주민들이 국가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국가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오래 동안 지속되어온 '국민국가'적인 사고방식이 '탈경제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헌법이 여러 나라에서 부결된 것도 이를 입증해 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화시대에도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둘째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월경적 접촉은 그 빈도가 늘어감에 따라 물론 양국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Allport(1958)가 그의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에서 제시했듯이 이러한 외적인 교류증가가 반드시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내적인 관계 개선이나 공동체 의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만약 해당지역이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오히려 상호간의 편견만 심화시킬 수도 있다. 셋째 유리러전의 궁극적 목표는 '초국경적 정체성'의 구현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초국경적 지역주의(trans-border regionalism)'의 형성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단순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화교류나 지속적인 홍보·교육은 물론 월경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월경협력에 대한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 월경협력 문제에 무관심해지는 '타성화 효과(inuring effect)' 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Blotvogel, et al., 1989; Eder and Sandtner, 2002).

5. 결론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라인강 상류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와 같이 국경의 장애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접경지역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과거 변두리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사회집단과 개인의 의지가 공간적으로 반영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치·문화적 변화의 유용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 연구에 왕도는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례연구들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그 주제도 접경지역의 역사, 정체성, 사회·경제적 맥락, 문화·정치적 배경, 월경조직에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태도·행동양식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다. 본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Ullman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3대원리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분석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지리학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계와 탈경계의 과정(bounding and debordering process)'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려 시도할 때 지리적 스케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러리전 '라인강 상류'에서와 같이 월경협력은 공간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은 한편으로는 동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이성이 부각되는 혼성적인 지역이다. 'Regio TriRhena'도 자연환경·언어·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동질적이면서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이 두 가지

측면이 결합해서 역설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의 외형적인 교류증대가 쉽게 내적인 공동체의식으로 접목되지는 않는다. 물질적 교류가 월경협력을 위한 도로라 한다면 정신적·문화적 교류는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장벽이 제거될 때만이 명실 공히 '초국경적 공동체'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초경계적 지역 정체성'의 구현은 앞으로 접경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유럽통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빈, 2002, "지리학에서의 경계연구의 동향-중·동부 유럽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40, 1-18.
- 김상빈·이원호, 2004, "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117-136.
- 김영봉, 200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 국토정책 Brief, 74.
- 김영봉, 2005,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해남북접경 지역 평화벨트 구상," 국토정책 Brief, 89.
- 김원배, 2002,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월경적 지방간 협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문남철, 2002,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 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7(4), 442-459.
- 이원호, 2002, "홍콩-광둥 지역경제 통합과정: 개방적 접경경제공간의 형성과 의미," 지리학논총, 40, 19-36.
- 이원호, 2005, "개성공단 개발과 월경적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모색-홍콩-광둥지역경제 통합과정 경험의 적용-", 지리학논총, 45, 297-314.
- 이현주, 2002, "유럽공동체의 개방공간상에서 보완지역간의 초국경적 통합-프랑스 접경지역을 사례로 -, " 지리학논총, 40, 37-60.
- 최재현,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Agnew, J.(ed.), 1997, *Political Geography: A Reader*, Arnold, London.
- Agnew, J., 1998, *Geopolitics*, Routledge, London.
- Allport, G., 1958, *The Nature of Prejudice*, Anchor

- Books, Garden City, NY.
- Ante, U., 1981, *Politische Geographie*, Westermann, Braunschweig.
- Baechtold, H.G. and Huber, M., 2003, Grenzüberschreitende Raumplanung in der Trinationale Agglomeration Basel(TAB) : Von einer Sektorenstadt zur grenzüberschreitenden Agglomeration, *Regio Basiliensis*, 44(2), 125-134.
- Blatter, J. K., 2003, Debordering the World of States: Toward a Multi-Level System in Europe and a Multi-Polity System in North America? Insights from Border Regions, in Brenner, N. et al.(eds.), *State/Space : A Reader*, Blackwell, Oxford.
- Blotevogel, H. H., Heinritz, G. and Popp, H., 1989, Regionalbewusstsein : Zum Stand der Discussion um einen Stein des Anstosses, *Geographische Zeitschrift*, 77(2), 65-68.
- Brunotte, E., et al(eds.), 2002, *Lexikon der Geographie*, 1.Bd.,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Heidelberg.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Blackwell, Oxford.
- Deleuze, G. and Guattari, F., 1984, *Anti-Oedipus*, Athlone, London.
- Eder, S. and Sandtner, M., 2000, Staatsgrenzen in der TriRhena-Barriere oder Stimulus? *Regio Basiliensis*, 41(1), 15-26.
- Eder, S. and Sandtner, M., 2002, Common Spirit in the Upper Rhine Valley, in Kaplan, H. and Haekli, J.(eds), *Boundaries and Place : European Borderlands in Geographical Context*, Rowman & Littlefield, Lanham.
- Haefliger, Ch., 2003, Institutionelle grenzübergreifende Initiativen in der EuroRegion Oberrhein, *Regio Basiliensis*, 44(2), 175-182.
- Haekli, J. and Kaplan, D. H., 2002, Learning from Europe? Borderlands in Social and Geographical Context, in Kaplan, H. and Haekli, J.(eds), *Boundaries and Place : European Borderlands in Geographical Context*, Rowman & Littlefield, Lanham.
- Johnston, R. J. et al.(eds.), 2000,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4th ed.), Blackwell, Oxford.
- Lezzi, M., 2000, *Portraits von Schweizer EuroRegionen : Transboundary Co-operation in Switzerland*, Schriften der Regio 17, Helbing & Lichtenhahn, Basel.
- Martinez, O. J., 1994,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New Approach to border analysis, in Schofield, C.H.(ed.), *Global Boundaries*, Routledge, London, 1-15.
- Minghi, J. V., 1963, Boundary Studies in Polit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3, 407-428.
- Mohr, B., 2000, Grenzgaenger Verflechtungen in der Regio TriRhena. Entwicklungen und Strukturen, *Regio Basiliensis*, 41(1), 27-38.
- Newman, D., 2003, Boundaries, in Agnew, J. et al.(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Blackwell, Oxford.
- Passi, A., 2003, Boundaries in a Globalizing World, in Anderson, A. et al.(eds.),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Sage, London.
- Schaefer, S., 1996, *Kulturraum Oberrhein : Grenzüberschreitende Kulturarbeit in der deutsch-Franzoesisch-schweizerischen EuroRegion*, Schriften der Regio 15, Helbing & Lichtenhahn, Basel.
- Schroeder, E. J., 2000, Die Regio TriRhena als grenzüberschreitender Wirtschaftsraum, *Regio Basiliensis*, 41(1), 3-14.
- Speiser, B., 1993, *Europa am Oberrhein : Der grenzüberschreitende Regionalismus am Beispiel der oberrheinischen Kooperation*, Schriften der Regio 13, Helbing & Lichtenhahn, Basel.
- Storey, D., 2002, Territory and National Identity : Examples from the Former Yugoslavia, *Geography*, 87(2), 108-115.
- Stouffer, S. A., 1940, Intervening Opportunities : A Theory Relating Mobility and Dista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 845-867.
- Sum, N. L., 2003, Rethinking Globalisation : Re-articulating the Spatial Scale and Temporal Horizons of Trans-Border Spaces, in Brenner, N.

김부성

et al.(eds.), *State/Space: A Reader*, Blackwell, Oxford.

Ullman, E. L., 1957, *American Commodity Flow*,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Wheeler, J. O., 1998, *Economic Geography*(3rd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http://www.regbas.ch/RB_Broschuere.pdf

http://www.regiotrirhena.org/de_DE-Chiffrescles/

Correspondence: Boo Sung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136-701, Seoul, Korea(email: kimboo@korea.ac.kr, phone: 02-3290-2364, Fax: 02-3290-2360)

최초투고일 06. 1. 17

최종접수일 06. 3. 21

교신 : 김부성,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 kimboo@korea.ac.kr, 전화 : 02-3290-2364, Fax: 02-3290-2360)